

풀코스 1초차 접전... 막판 역전드라마



김동욱, 결승선 3m 앞두고 극적 뒤집기로 우승
 직장·동호인·가족 1만명 레이스... 모두가 챔피언

10km 반환점 일부 혼신

제45회 광주일보3·1절전국마라톤대회 남자 풀코스에서 보기 드문 1초차 명승부가 펼쳐졌다.

광양 출신 김동욱씨가 결승선을 불과 3m 앞두고 선두 주자를 제치면서 막판 극적인 역전 우승을 거뒀다. 더구나 김동욱씨가 따라잡았던 선두 주자는 다름아닌 3년 전 자신을 추월하면서 1등을 차지했던 심재덕씨였다. 3년전 패배를 설욕한 김동욱씨는 이로써 지난 2006년 대회 이후 4년만에 풀코스 정상에 되찾는 기쁨을 누렸다.

이날 반환점을 돌아 끝까지 끈기있게 광주월드컵경기장에 모습을 먼저 드러낸 주자는 대회 4연패를 노린 심재덕씨, 심재덕씨의 10여m 뒤에 김동욱씨가 바로 뒤따르고 있었다.

400m 트랙을 거의 한바퀴 돌아 결승선에 가까워지도록 심재덕씨는 김동욱씨의 추격을 의식하지 못한채 느긋하게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김동욱씨는 결승선 5m 앞두고 전력 질주, 거의 끝난 순간 심재덕씨를 제치는 극적인 승부를 펼쳤다.

결과는 김동욱씨가 2시간38분18초, 심재덕씨가 2시간38분19초로 1초차의 승부였다. 결국 대회 4연패를 눈앞에 뒀던 심재덕씨는 믿기지 못한듯 아쉬운 표정을 지었으나, 뒤집기에 성공한 김동욱씨는 두 손을 번쩍들며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날 광주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마라톤 마니아들의 '축제의 장'이었다.

동호회·직장·동창회·가족 등 시민 1만여명의 출전자들은 풀코스·하프코스·10km, 그리고 5km 코스에서 그간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여자부 풀코스에선 대전 출신 정기영(52)씨가 3시간05분14초를 기록하며 우승했다. 이로써 정기영씨는 지난 대회에 이어 2연패의 기쁨도 함께 누렸다.

하프코스 경기에선 경남 마산에서 온 신재하(33)씨가 1시간15분15초로 남자부 1위를 차지했으며, 여자부에선 목포마라톤

◇3·1절 마라톤 각 부문별 입상자

▶풀코스 남자부

순위	이름	시간
1	김동욱	2시간38분18초
2	심재덕	2시간38분19초
3	구병주	2시간45분23초

▶풀코스 여자부

순위	이름	시간
1	정기영	3시간05분14초
2	윤삼희	3시간14분02초
3	김애경	3시간14분33초

▶하프코스 남자부

순위	이름	시간
1	신재하	1시간15분15초
2	강동식	1시간15분51초
3	김순열	1시간16분54초

▶하프코스 여자부

순위	이름	시간
1	김순금	1시간30분59초
2	김기영	1시간36분05초
3	윤미경	1시간36분11초

▶5km 남자부

순위	이름	시간
1	이재식	15분11초
2	김상성	15분28초
3	전재완	15분33초

▶5km 여자부

순위	이름	시간
1	남미옥	16분22초79
2	한희순	19분28초35
3	김정희	20분06초28

클럽 소속 김순금(35)씨가 1분30초59로 가장 먼저 끝선을 통과했다.

5km 경기에선 충남 공주 출신 이재식(29)씨가 15분11초로 남자부 우승, 지난해 2위의 설음을 씻어냈다. 군산 출신 남미옥(44)씨는 16분22초79로 여자부 5km 1위를 기록하면서 대회 3연패의 기쁨도 누렸다.

한편 이날 10km 부문에선 반환점 표기가 시인성이 떨어져 일부 주자들이 미처 반환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백m 더 달리는 착오가 있었다. 10km 입상자는 2일 오후 마라톤홈페이지(<http://kjmarathon.co.kr>)에 공지할 예정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3·1 마라톤을 위해 광주를 찾은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대지를 적신 봄비의 마중을 받으며 거리를 질주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간발의 차 우승

풀코스 남자부 우승자 김동욱(44·광양·오른쪽)씨가 대회 4연패에 도전했던 심재덕(42·경남 거제·왼쪽)씨를 간발의 차로 제치고 우승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관전평
심재용

“참가자 모두의 땀방울 소중했던 최고 대회”

겨우내 봄을 기다렸던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그동안의 기량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었던 대회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화창한 날씨 대신 봄을 재촉하는 이슬비가 촉촉하게 내리기는 했지만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고, 흠지도 덥지도 않은 선선한 기온이 이어지면서 달리기 하기에 좋은 조건이 형성됐다. 3·1 마라톤은 호남을 대표하는 전통 이

는 대회다. 광일마라톤이라는 이름 아래 김재룡, 문홍주 등이 지역 선수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마라토너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찾는 명실상부

한 역사와 감동이 살아있는 대회로 차별화 됐다.

새 봄이 시작되는 3월, 전국의 마라톤 마니아들에게 3·1절 마라톤대회는 한 시즌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중요한 대회다. 남녘의 봄기운 속에 겨울 훈련의 성과를

확인하면서 한 해의 마라톤 스케줄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떠나서도 3·1절 마라톤대회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자리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목놓아 외쳤을 3월1일, 우리에게 평화로운 삶을 물려준 선열들의 노력과 고통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이를 계승해 나가야 할 후손들의 의무와 도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심신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의미있는 대회다. 대회를 준비해온 주최, 주관사, 교통경

참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환급연휴 교통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시·도민들의 협조에 진심 어린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비록 순위에 들지 못했더라도 출전자 모두의 땀방울이 소중했던 최고의 대회였다.

월드컵경기장에서 뜨거운 함성을 외친 모든 이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내년 3월1일 민주화의 성지 빛고을에 더 많은 전국의 마라토너들이 찾기를 바란다.

(대회 심판단장·광주육상경기연맹 전무이사)